

# 예술가·관람객·기획자, 경제 허물고 축제로 만나다

### 광주그룹 모타페 '모타모타 페스티벌' 26~27일, 남구 대촌동 얼쑤 운동장 음악·음식 등 '모아서 나눈다' 의미

고사성어 '십사일반'은 밥 열 손가락이 모이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나눔의 정을 함의한다. 혼자서는 미미하지만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세상에 가능한 일들이 많다.

예술가와 관람객, 기획자가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의기투합해 만들어가는 축제가 열려 화제다.

일반적인 축제는 무대와 객석을 이분화하고 짜여진 타임라인에 맞춰 공연이 진행되지만, 이번 페스티벌은 고전적 행사의 틀을 깨고 함께 어울린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광주지역 아티스트그룹 모타페는 '2023 모타모타 페스티벌'을 오는 26일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1박 2일간 얼쑤 운동장(남구 대촌동)에서 펼친다.

축제 이름인 '모타'는 '모으다'라는 뜻의 광주 방언 '모타'에서 착안했다. 각자의 음악, 음식 등을 '모타(모아)' 풍성한 축제를 꾸려가겠다는 취지로 관객, 공연, 기획 등의 벽을 허물고 '다 함께 만드는 축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18년 7월 화순 수만리에서 처음 열린 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펼쳐진다. 26일부터 예정된 올해 축제에 앞서 현재 예술가 및 일반 참가자를 1차 모집 중(11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총 3차까지 모집한다는 계획.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축제



지난 축제에 참여한 '센치한 버스'의 공연 모습. <모타페 제곱>

에는 지난 18년 라인업에 올랐던 아티스트들 중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축제에는 원보틀, 우물안개구리, 센치한버스를 비롯해 그란디, 김과리, 이진우, 바닥프로젝트, 거봉블루스 등 다양한 광주지역 뮤지션들이 참가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으로 활발한 행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려왔다.

이번 축제에서도 언급한 뮤지션들 중 일부가 다시 행사에 참여해 각자의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출연진과 레퍼토리가 확정되면 공연 시작은

참가팀 수에 맞춰 분배하게 된다.

한편 축제는 비박으로 진행하며 기본적인 음향은 준비돼 있지만 '모아서 나눈다'라는 축제의 의미에 맞춰 아티스트는 악기를 직접 챙겨와야 한다. 나눔의 취지에 따라 공연 개런티는 없다.

일반 참가자 또한 음식, 캠핑용품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오면 되며 쓰레기는 직접 가져가야만 한다. (단 안전문제로 인해 음식은 조리된 음식만 가능)

축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를 추구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판을 벗어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결함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글폼(<https://forms.gle/X6vjaAsf1V7YKoi88>) 신청.

자세한 내용은 모타페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휴일'

## 태어나고 자란 '남녘바다'

### 박병락 초대전, 9월 3일까지 진도 여귀산 미술관

"나에게 바다는 어머니이며 사랑이다." 우초 박병락 한국화가에게 바다는 '어머니' 그 자체다. 어머니를 대체할 만한 비유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이에게 어머니는 평안과 슬픔과 그리움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진도 출신 박병락 작가의 '남녘바다' 초대전이 진도 여귀산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물을 정겨운 시선으로 내면화하거나 자연주의 미학을 추구하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바다의 살아있는 생생한 실체와 예술과 맞물려 그의 작품은 남다른 힘이 있다. 태어나고 자란 화폭 속의 바다는 밀도가 있으면서도 독창적이다. 진도의 거친 듯 섬세한 갯벌에서 무수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그 때문이다.

더욱이 작가는 진도 임회면 죽림마을에

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오후 3시까지는 생업을 위해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작품에 매진한다.

이번에 출품된 '휴일'이라는 작품은 섬의 정취를 환기한다. 푸른 산과 먹빛의 바위,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한가한 시간 등이 맞물려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먹빛 속에 얼핏얼핏 드러나 보이는 빛들은 신비감이 있으면서도 여운을 준다. 특히 가늘게 이어지는 선들, 검은색과 회색 톤의 조화는 '휴일'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한편 우초 박병락은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광주에서 4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한·중·일 중견작가 교류전과 국제 수목비엔날레와 영·호남 수목화 교류전에도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8월에 즐기는 멋과 풍류

###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국악팀 '화양연화', 이영애 등 무대

예술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빛깔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종년, 이하 재단) 전통문화관은 '2023 토요일상설공연 8월 무대'를 오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오후 3시)마다 서석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봄날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국악작가대부터 사계절의 멋과 풍류를 담아낸 연희·무용 무대까지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가야금명창 이영애

먼저 12일에는 국악팀 '화양연화'가 퓨전국악공연 '제미난 노래'를 주제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난강학네와 '내사랑아'와 같은 곡 조부터 '열두 달이 다 좋아', '아름다운 나라', '꽃길' 등을 선사한다.

19일에는 '더댄스컴퍼



퓨전국악팀 '화양연화' <광주문화재단 제공>

니'가 '춤·열두 달이 다 좋아. 우리 춤으로 바라본 세계'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연희와 무용이 뒤섞인 무대에서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태평무', 꽃병채를 들고 추는 춤 '화선무'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준비돼 있다.

끝으로 26일에는 무형문화재 초청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가야금명창에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명창 예능보유자인 이영애가 나서 '심청가'를 주제로 연주를 펼친다.

단가 '호남가' 중에서 가야금명창 '수궁가 중 화사자 대목'을 선보이며 '명기명창'에서 가야금명창 '심청가 중 화초타령부터 심봉사 눈뜨는 대목' 등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안지영 가야금명창 전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김동현 고수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전통문화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다. 무료 관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소화IV'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

### 안진석 개인전, 16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안진석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회적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기록을 위한 방편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다. 그는 그림 안에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6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태어나는 사건들과 기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모티브다. 작가에게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사건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됐던 대형 사건들은 고스란히 작품의 소재로 전이됐다.

작품 '소화IV' 속 사고현장의 풍경들은 흑백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작품 중에 보이는 소방관들은 화면에서 유일하게 색을 가진 존재로 드러난

다. 그들에게 씌워진 생일파티 모자는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의 그림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한편으로 작품에서 느껴지는 밝은 색감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읽힌다.

작가는 "나의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기록하는 이야기를 담아낸다"며 "전시를 통해 그동안 잊혀져 있던 우리 시대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마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공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해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헬조선에서 펼쳐지는 복수 활극 '지옥만세'

### 임오정 감독 독립영화, 16일 광주극장·광주독립영화관

연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가 개봉을 앞둔 화제다. 오는 16일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임오정 감독의 독립영화 '지옥만세'가 바로 그것.

작품은 폐교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앞둔 18세 소녀 '나미'와 '선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평범한 학생들인 이들은 학교에서 일진 '박재민'에게 '뺨서들', '집단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한다.

한편 두 사람이 복수를 끊으려는 순간 가해자 채린의 소식을 SNS를 통해 접한다. 너무도 잘 살고 있는 그를 보자 나미와 선우는 "너 죽어도 개는 상관없이 쪽 잘 살 걸?"이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약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계의 부당함에 두사람이 복수를 다짐한다.

그러나 소수문 끝에 만난 채린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교회에서 회개하고 신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자애로운 성녀의 자태를 방불케 한다.

작품은 복수의 여정을 수화여행 형식의 모험기로 그려낸다. 복수가 서사의 주가 되는 리벤지무비를 표방하고 있지만 '회개한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피해자의 시선에서 묘사한다.

한편 이번 작품은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CGK촬영영상과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 넥스트링크상을 수상했다. 나미 역에 오우리, 선우 역에 방효린이 맡았다. 채린 역은 '소년심판'에서 연기했던 정이주가 맡았으며 이외에도 '더 글로리'에 출연했던 박성훈 등이 연기를 선보인다.

임 감독은 그동안 '한낮의 피크닉(2019)', '더도 말고 덜도 말고(2014)', '거짓말(2009)' 등을 선보여왔다.

12세 이상 관람가.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극장이나 광주독립영화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